

감동적인 이야기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내 친구 형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파티는 밤 11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형주와 함께 밤 늦은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탄지 30분 쯤 지났을 때, 형주가 말했습니다.
“소변이 급해.....”
종로 3가에서 내렸습니다.
무작정 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화장실 표시도 겨우 보였습니다.
화장실 앞 어두운 복도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친친 감은 여자가
추위에 몸을 떨면서 썸바귀 꽃처럼 앉아있었습니다.
한 겨울인데도 그녀는 여름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꼭 감은 그녀는
누더기 같은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아기는 잠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도
아기엄마는 눈을 꼭 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주는 아기 엄마 옆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케이크를
형주는 아기엄마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크 상자 위에 천 원짜리 몇 장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엄마였습니다.

"저..... 이거 두고 가셨는데요."
케이크 상자와 천 원짜리 몇 장을 손에 들고
아기엄마는 선하디 선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 꺼 아닌데요."
형주는 당황스런 눈빛으로 조심조심 말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이 붉은 눈을 치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형주는 차비까지 몽땅 털어 아기 엄마에게 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로에서 집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네 시간이 넘도록 걸었습니다.
형주는 양말만 달랑 신고 한 겨울 추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름 슬리퍼를 신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엄마 옆에,
형주는 신발까지 벗어두고 왔습니다.

"형주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주는 소년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발..... 이..... 좀..... 작..... 짱..... 아..... 히히."
이 아홉 글자를 말하는 것조차도
내 친구 형주에겐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말 한 마디를 하려면
형주는 이끼 낀 돌다리를 수도 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말을 할 때, 형주의 얼굴은 가장 슬펐습니다.
형주는 뇌성마비로 많이 아팠습니다.

세월은 물고기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서른 살이 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예식장 로비에 서서 형주를 찾았지만 끝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 형주 아내가 토막 숨을 몰아 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여덟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
네...."
숨을 몰아 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석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석민이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의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환아,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사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석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 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만 삼 천 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 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었으니까.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여, 오늘은 너의 날이다.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세 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 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습니다.
“형주 이 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 할 텐데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 봐,
엄마 등 뒤에 잠든 아가가 마음 아파할까 봐 나는 짝 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 가운데 서서
어깨를 출렁이며 나는 울었습니다.

형주는 지금 조그만 지방 읍내에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열 정도 안 되는 조그만 서점이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이 편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무 의자가 여덟 개입니다.
그 조그만 서점에서 내 책 저자 사인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으로 남으로 여덟 시간을 달렸습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와는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사인회는 아홉 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사인을 받은 사람은 일곱 명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으로만 이야기 했습니다.

“형주야, 나도 너처럼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살며시 웃으며 담장 너머로 손을 내미는 사랑 많은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오늘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전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힘내라고..... 따뜻한 격려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感動的な話

大変寒い冬でした。
私の友達ヒョンジュの誕生日でした。
誕生日パーティーは夜11時が過ぎて終わりました。
ヒョンジュと一緒に夜おそいバスに乗りました。
バスに乗って30分くらい経った時、ヒョンジュが言いました。
“トイレが急なの.....”
鐘路3街で下りました。
やたらに大きい建物に入って行きました。
トイレは3階にありました。
四方が暗かったです。
トイレ表示もやつのことで見えました。
トイレ前の暗い廊下に誰かがうずくまって座っていました。
古い襟巻きを髪までチンチン巻いた女が
寒さに身を震わせながら苦菜花のように座っていました。
真冬なのに彼女は夏スリッパをはいていました。
彼女はコートも着ていなかったです。
二つの目を閉じた彼女は
ぼろみtainなコートで赤んぼうを抱えていました。
お母さんの胸で赤んぼうは眠っていました。

私たちがトイレを出た時も
赤んぼうのお母さんは目を閉じてその席に座っていました。
ヒョンジュは赤んぼうのお母さんの側にこわごわ歩いて行きました。
誕生日プレゼントでもらったケーキを
ヒョンジュは赤んぼうのお母さんの側にそっと下ろしました。
ケーキ箱の上に千ウォンの何枚も乗せました。
何も言わずに階段を下りました。
階段をほとんど下った時、
誰か急に階段を下る音が聞こえました。
赤んぼうのお母さんでした。

“あの.....これ置いていらっしやっただんです。”
ケーキ箱と千ウォンの何枚を手を持って
赤んぼうのお母さんは善良な顔で言いました。
時間がしばらく止まりました。
“うちのものではないですよ。”
ヒョンジュは戸惑う目つきでこわごわ言いました。

建物外に出ました。
通りのネオンサインが赤い目を上目にして私を睨んでいました。
冬の冷たい風一筋が過ぎ去りました。

ヒョンジュはバス代まで全部はたいて赤んぼうのお母さんにあげて来ました。
私たちは鐘路から家まで歩い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す。
四時間以上かかりました。
ヒョンジュは靴下のみ履いて真冬の寒い通りを歩きました。
夏のスリッパをはいて寒さに震えている赤んぼうのお母さんの側に、
ヒョンジュは履物まで脱いでおいて来ました。

“ヒョンジュや.....”
息がつまりました。何も言えなかったのです。
ヒョンジュは少年のように笑いながら言いました。
“私の.....足.....が.....少し.....小.....さ.....い.....ヒヒ。”
この九字を言うことすら
私の友達ヒョンジュには難しい事でした。
一言を言うためには
ヒョンジュは苔立ち込めた石橋を数え切れないほど渡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す。
ものを言う時、ヒョンジュの顔は一番悲しかったです。
ヒョンジュは脳性麻痺でとても痛かったのです。

歳月は魚のように早く過ぎ去りました。
私は三十歳を超えたと結婚をしました。
結婚式日でした。
結婚式がすべて終わるまで友達ヒョンジュの顔は見えなかったのです。
こういうわけがないが.....本当にこういうわけがないが.....
結婚式場のロビーに立ってヒョンジュを捜したが遂にヒョンジュは見えなかったのです。
ちょうどその時ヒョンジュの奥さんが息切れの呼吸して、
結婚式場の階段を急に上って来ました。
“高速道路があまり渋滞して八時間以上かかりました。どうか式がすべて終わってしまったな....”
大きく息をする友達の奥さんの額にはふつつ汗していました。
“ソックミンのパパは今日来る事ができませんで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
ソックミンのパパがこの手紙を伝えて下さいと言いました。”
友達の奥さんは言葉も終わる前に涙から浮べました。
ママの古いコートを覆って背中赤ん坊はぐっすり眠っていました。

“チョンハンよ、ヒョンジュだ。私の代わりに家内が行く。

貧しい家内の瞳に私の姿も盛って送る。
一日を儲けて一日を暮らすリヤカーリンゴ商売だから
この良い日、お前と一緒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許してくれ。
りんごを売らなければソックミンイが今夜飢えなければならない。
昨日は朝から夜12時までリンゴを売った。
一日寒さと争ったお金が一万三千ウォンだ。
しかし大変だとは思わない。
陽炎モグモグ立ち上がった日、
土の中をくぐって出る青い芽を眺めて、
お前と一緒に希望を歌った時代が私にはあったからだ。
私今、涙ぐんでこの文を書いているが心だけは嬉しい。
家内の手にリンゴ一袋持たして送る。
昨夜黄色い白熱灯の下で一番綺麗なもののみ選び出した。
新婚旅行行って食べなさい。友達よ、今日はお前の日だ。
この良い日お前と一緒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心痛がってくれ。
私はいつもお前と一緒にいる。

-海南よりヒョンジュが”

手紙とともに入っていた一万ウォンの一枚と千ウォンの三枚.....
脳性麻痺で体の調子が悪いヒョンジュが、
通りに立って真冬の寒さと変えたお金でした。
私は笑いながらリンゴ一個を取り出しました。
“ヒョンジュこいつ、どうしてリンゴを送ったんですか。商売は何でしょうと.....”
洗ってないリンゴを私はむしゃむしゃと噛みました。
しきりに涙が出ました。
新しい新郎が涙流してはいけないのに
減った靴をはいている友達の奥さんが心痛がるでしょうに
しきりに涙が出ました。

遠くでも私を見ている友達ヒョンジュが心痛がるか心配で、
お母さんの背中で眠った赤ん坊が心痛がるか心配で私はぎゅっと歯を喰いしばりました。
しかし堪えても堪えても出る泣きでした。
人々行き交う結婚式場のロビーの真ん中に立って
肩をだぶつきながら私は泣きました。

ヒョンジュは今小さい地方町で書店をしています。
十坪もならない小さい書店だが、
貧しい家の子供達が楽に座って本を読める木椅子が八個であります。
その小さい書店で私の本の著者サイン会をしようと思いました。
バスを乗って南へ南へ八時間を走りました。

Kyobo 文庫や永豊文庫で、
多くの読者たちにサインをする時とは違う幸せでした。
正午から夜9時までサイン会は九時間も続きました。
サインを受けた人は七人でした。
幸せな時間だったと友達に言ってくれたかったです。
しかし私は心だけで話しました。
“ヒョンジュよ、私もお前のように柿の木になりたかったの。
そっと笑いながら垣根向こうで手を突き出す愛多い柿の木になりたかったの.....”

今日は近い友達に、愛する人々に
皆さんが先に電話でもしてください。
疲れた暮らしを生きて行く友達に
力を出しなさいと.....力を出しなさいと.....暖かい激励でもしてください。